

##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b>과 제 명</b>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방안 연구(Ⅱ)					
<b>출장목적</b>	<input type="checkbox"/> 해외 주요 국가들의 돌봄정책 현황 점검 및 한국사례 경험 공유,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국가들 중 모범적인 돌봄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책현황 및 이슈점검</li> <li>- 2차년도 연구의 핵심인 돌봄 공공성 모델을 잘 실천하고 있는 국가로 덴마크, 네덜란드 사례 선정</li> <li>- 아동·노인 돌봄 전문가 간담회: 정책현황 청취 및 한국 돌봄정책 사례 소개와 돌봄정책 방향성 자문</li> <li>- 아동·노인 돌봄 기관 방문: 돌봄 공공성 모델이 실천되고 있는 정책현장 방문</li> </ul>					
<b>출장기간</b>	<b>당초</b>	7월 1일(출국) -8일(입국)	<b>변경</b>	변경없음		
<b>출 장 지</b>	<b>당초</b>	덴마크 코펜하겐, 네덜란드 헤이그/위트레흐트	<b>변경</b>	변경없음		
<b>출 장 자</b>	김은지 연구위원, 최인희 연구위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					
<b>출장비용</b>	<b>항공료</b>	5,494천원	<b>체재비</b>	3,716천원	<b>기타 출장비</b>	통역비: 2,100천원 현지전문기자문수당: 559천원
<b>출장업무 처리 개요</b>	별도 붙임					

# 주요 논의 결과

## I. 돌봄 연구자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 1. 돌봄 공공성 관련 한국·덴마크 사례 세미나(7.2)

[참석자: Peter Abrahamson 교수, Myra Lewinter 연구원 (University of Copenhagen),  
김은지 연구위원, 최인희 연구위원(본원), 김수정 교수(동아대학교), 양난주 교수(대구대학교)]

- 한국 돌봄정책의 최근 변화 사례 소개
  - 최근 급속한 돌봄정책의 확대, 돌봄의 공식화와 보편주의의 진전 (아동돌봄의 무상보육사례-높은 보육률, 노인돌봄의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 민간위주의 전달체계로 인한 한계와 개선과제 존재
- 덴마크 돌봄정책 소개 및 현안 논의
  - (compromised consensus) 덴마크에서 자녀양육지원(보육)은 사회적 불평등보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더 관계있음.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있어 노동시장 참여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자녀의 사회화 (socialization of children)임
  - (육아휴직) 덴마크 육아휴직은 “use or lose day”로 설계되어 있어 최근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가 증가
  - (보육비용) 비용의 1/3 가량을 부모가 부담. sliding scale이며, 보편적 지원임. 보편주의.
  - (보육기관형태) 1) municipality facilities와 2) NGO independent facilities가 있으며 2)의 경우에도 municipal guideline을 따름
  - (교사 자격) preschool과 elementary school의 교사는 professional bachelor's degree 가지고 있어야 함. 대부분은 4년제 학사학위 취득자임. 교사는 civil servant 가 아닌 public employee 임(과거 civil servant는 경찰, 군인 등이었으며 현재는 phased out 하는 상황임). 교사들은 노조조직률이 높음.
  - (care worker) home helper는 18개월 직업교육 -> nursing aids/assistant는 18개월+1년 교육 필요함. social workers는 professional bachelor's degree를 소지해야 함
  - (현안)
    - 1) EU 회원국 정책 조율: EU의 권고를 회원국이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그렇지만 soft law/best practices, country reports를 통해 shame/blame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따르는 분위기
    - 2) 은퇴 연령: 은퇴 연령 상향조정 되는 전환기임
    - 3) privatization of elderly care: 재정지원, 책임과 규제는 municipality에, 서비스 공급 (provision of care)만 privatized되고 있음

### 2. 덴마크 사회과학원 돌봄연구 간담회(7.3)

[참석자: Tine Rostgaard 교수(The Danish Center for Social Science Research),  
김은지 연구위원, 최인희 연구위원(본원), 김수정 교수(동아대학교), 양난주 교수(대구대학교)]

- 북구 공공서비스 모델(The Nordic public service model)

- 1) public responsibility for organization and financing and to a lesser degree, provision
- 2) formal approach
- 3) universalism - made available for all and generally used by all
- 4) affordable, attractive and flexible services
- 5) broad public support

- 정책변화

- 1) 1970년대 초기도입기 탈시설화
- 2) 1980년 National Commission on Ageing
- 3) 현재 aging-in-place, self-help가 이슈

- 최근 이슈

- New Public Management (NPM) → New Public Governance (NPG)로 변화중(효율성, 질 제고, welfare mix)
- 재가돌봄에서 영리사업자: 영리사업자 이용율 36% 수준. 가사서비스 등이 많음. 기존 이용자, 가장 취약한 이용자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며, 이용자는 질의 정보 접근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for-profit providers가 실제로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 아니지만 marketization으로 인해 이용자 측면에서의 장점(예: 지각하지 않기, 되도록 동일한 CG가 파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음.
- “Reablement”: 단기간 재가서비스(3-12주), 2015년부터 의무 서비스임.

### 3. 네덜란드 정책자문위원회 돌봄연구 간담회(7.4)

[참석자: Monique Kremer 교수 (Universiteit van Amsterdam, 현재 WRR(네덜란드 정책자문위원회) 소속)  
김은지 연구위원, 최인희 연구위원(본원), 김수정 교수(동아대학교), 양난주 교수(대구대학교)]

- (국가와 보육) 1990년대부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함. 국가가 보육서비스 제공을 책임져야 할 동인이 크지 않았고, 현재에도 시간제가 많아 일반적으로 아동이 3일 정도만 기관을 이용
- (현황) 2005년부터 현재 아동지원 정책 시스템이 도입되었음. 자녀양육 지원에 pedagogical attentions 낮은 상황이었음. 보육정책은 규제된 경쟁(regulated competition)임
- (비용) 이용비용은 부모가 지불하고 세금공제 받게 됨. 세금공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임
- (중앙정부의 역할) 규제와 관리 담당
- (노인돌봄) “home care” 노인돌봄과 관련된 주요법은 4개임 1) municipality practical help는 지자체에서, 2) wash, personal hygiene(insurance company에서 refund 해주며, health care organization service provider로부터 구매), 3) 24 hour intensive care (funded by Law on LTC), 4) Personal Budget (intensive LTC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가능, social insurance bank)

#### 4. 네덜란드 돌봄연구자 간담회(7.5)

[참석자: Janneke Plantenga 교수 (Utrecht University) ,

김은지 연구위원, 최인희 연구위원(본원), 김수정 교수(동아대학교), 양난주 교수(대구대학교)]

- (성평등 관점과 돌봄) gender equality에 접근할 때 비용이나 moral에 의존하기 보다는 gender equality 가 economic growth를 촉진한다는 관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네덜란드 보육 역사) Child Care Act 2005를 통해 부모의 권리 보장. 현재 보육정책은 공공이 상당한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 Child Care Act 2005가 보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시장화 이후 소비자인 부모가 provider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기 어려웠기 때문임. 실제로 경쟁에 의한 질 제고는 어려운 이슈임. 네덜란드의 보육 정책은 분절화된 시스템임. 파트타임 노동자가 많이 때문에 육아휴직정책이 발달하지 않았고(기간 짧고, 대체로 무급),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지 않았음. 현재 다음의 세 가지 기관형태가 있음.
  - 1) ECEC: 영아
  - 2) playgroups(preschool): 만 2-3세 대상으로, 주2회 오전에 이용함
  - 3) primary school: 만 4세 이상이며, 연령통합임. 이때부터 universal system이 시작됨
- (근로시간과의 관계) 네덜란드 보육정책은 아동의 복리증진, 교육적 이데올로기가 아닌 일하는 부모(working parents), 일하는 여성(working women)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함. 따라서 네덜란드의 근로시간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돌봄정책도 이해하기 어려움. 여성의 80%가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돌봄정책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음. 전일제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전문직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도 대체로 주 4일만 근무. 아이가 어릴 경우 아빠/엄마가 모두 반일제로 일하고 영유아기 지나면 아빠는 전일제, 엄마는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음
- (서비스 질 관리) 국가 지침에 따라 hygiene 등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돌봄의 질 측정에 대한 논란이 있음. 아이 돌볼 때 2명의 교사(4 eyes)를 배치하여 학대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II. 돌봄기관 방문 및 현장 전문가 세미나 개최

### 1. 덴마크 코펜하겐 노인복지주택 방문(7.2)

- 방문기관: OK-Huset Lotte 노인복지주택

(Borgmester Fischers Vej 2A, 2000 Frederiksberg)

- 면담자: Karen Ditlevsen

- (개요) OK 재단 운영, 비영리 기금임. 노약자, 장애인 및 취약 집단의 관계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주요 활동 영역은 진료 지원임. 정신과 서비스, 호스피스 및 많은 수의 노인/노인 커뮤니티를 관리함.
- (직원) 직원과 거주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훌륭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임.
- (운영) 공동식사, 개별적인 주거공간, 건강관리(고령 거주자를 위한 건강 검진 및 관리), 거주자들간 친목

도모를 위한 공간 운영(스태프가 없는 자유로운 공간), 건강 관리 뿐 아니라 개인 돌봄을 위한 미용 및 마사지 제공

## 2. 덴마크 코펜하겐 숲 유치원 방문(7.3)

- 방문기관: Bøgely 숲 유치원

(Udflytterbørnehaven Bøgely, Raadvad 2)

- 면담자: Jette Ahrenst

- (개요) 66명의 어린이(3세~7세 사이)와 11명의 직원으로 구성(7명의 교사와 3명의 보조원), 1961년부터 6.1일부터 유치원으로 운영됨.
- (운영시간) 07:00-17:00
- (소속) The Asylum Company의 상부조직에 포함된 유치원이며, 독립적 법인체로 운영됨. 어린이들은 코펜하겐 시의회의 배치지침을 통해서 전달됨
- (철학)어린이들이 자연에서(숲) 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오픈하우스와 운동장이 보육시설보다 넓은), 등반하고, 놀고, 자유롭게 지냄.
- (시설) 오픈하우스 형태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지내고,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서 놀 수 있으며 아이들마다 옷장이 있음. 방이 있는 곳마다 다른 그룹으로 나뉘져 있음. 번호마다 다른 기능이 있으며, 예로 1층에는 극장, 식료품점, 도서관이 있고, 그라운드 플로어에는 동굴룸 등이 있어 놀 수 있음. 또, 창조적인 워크샵을 운영하며 위치에 따라서는 참여 가능한 성인이 있을 경우에만 열리기도 함.
- (부모참여) 학부모협의회는 5명의 부모, 3명의 직원 및 리더로 구성, 최소 연중 4회

## 3.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초등학교 방문(7.4)

- 방문기관: De Olijfboom school 초등학교

(J. F. Kennedylaan 6 3931 XK Woudenberg, <https://olijfboom.school/>)

- 면담자: Marianne Meerveld

- (개요) 학생 총 260명 (이 중 유치원과정 학생수가 약100명), 교사 총 25명
- (비전)
  -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함. 안전하고 어린이 개개인을 인식하는 환경에서 자격이 잘 갖추어지고 동기부여된 교사들 및 관리자의 지도아래 이루어짐.
  - 어린이들 개개인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점을 두며, 모든 면에서 최대한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도함.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개인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함(성적이 우수하고 특별한 도전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우등반, 읽기가 느린 어린이를 위한 특수읽기반, 언어치료반, 감정표현 반 등 어린이들 정규수업 외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위한 별도시간 운영)
  - 어린이가 속한 집단 내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연대와 상호책임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함.
- (방학) 1학년~8학년 필수 이수 시수는 7,520시간이며, 1년에 940시간 이수해야 함. 40주 수업+12주 방학으로 이루어짐. 방학기간은 권역(3개 지역)에 따라 정해졌으나 최근에는 학교 재량으로 방학기간을 정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수업시간) 등교/하교 시간은 모든 학생이 동일하나 쉬는 시간, 야외 활동시간이 학년별로 다름. 현재

8:30-12:00am, 12:00-1:15pm(점심식사는 각자 집에서, 집에서 못 먹는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학교에서 제공), 1:15-3:15pm로 운영되나 가을학기부터 8:30am-2:00pm까지 운영될 예정임

※ 이전 이용시간(네덜란드 전통적 초등학교 시간 모델)

저학년 : 1-4학년: 월화목: 8:30-12:00, 13:15-15:15, 수금: 오전 8:30-12:30

고학년 : 5-8학년: 월화목금: 8:30-12:00, 13:15-15:15, 수: 오전 8:30-12:30

- (방과후교실) 이번 가을부터 시작할 예정. 방과후교실은 공간만 제공하는 것으로 수업은 다른 조직이 운영함. 월/화/목만 운영되며(방학 때도 운영)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이용비용은 부모가 지불함(비용은 부모소득 수준에 따라 refund 됨). 민간조직이지만 모든 규칙은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비용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음
- (교사) 1984년 이후로 유아교육+초등교육 대학과정이 동일해졌음. 교사는 4년제 교대 졸업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석사학위 취득을 장려하고 있음. 교장 선생님도 현재 주4일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선생님이 1일 업무대행하고 있음. 교사들은 오후 5시 퇴근하며 행정업무도 많은 편임. 또한 저학년 교사는 대체로 저학년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교사급여가 국가로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public employee 임
- (비용) 예전에는 지방정부가 일부 지원했으나 현재는 중앙정부가 지원. 부모부담 없음. 어린이에게 맞춤형 지도가 필요한 경우(예, 광범위한 심리진단 등)지방 정부가 지원함.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학생이 많을 경우 학교에 추가 지원 있음. 즉, 학생수+교사수+아동의 상황(예: 부모 교육수준, 부모가 둘다 외국인일 경우 추가지원)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음. 교사 임금은 교사의 교육수준,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지원됨. 중앙에서 표준임금표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함
- (교사 고용 안전성) 중앙정부에서 학생수가 적을 경우 학교로 상황을 고지함. 학생수가 감소되면 교사를 해고하게 되나 현재 교사는 월급이 적고 일이 많아 기피하는 직업이라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4.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지역 돌봄기관 전문가 세미나(7.5)

[참석자]

- Ada van Dijk: Peuterspeelzaal De Ark 유아원 (Preschool the Ark)  
(De Bosrand 25 3931 AP WOUDENBERG, <http://www.pszdeark.nl/>)
- Ria Smith: Zorggroep Charim 노인주간보호센터  
(Groenewoude Kersentuin 1 3931 SR Woudenberg, <https://groenewoude.nl/dagbegeleiding>)
- Annet Bos: 네덜란드 영유아 보건소 직원(의사)  
(<http://www.cjgsoest.nl/consultatiebureau>)
- 김은지 연구위원, 최인희 연구위원(본원)
- 김수정 교수(동아대학교), 양난주 교수(대구대학교)

##### (1) Peuterspeelzaal De Ark 유아원 (Preschool the Ark)

- 유치원 가기 전 preschool 의 개념
- (인력) 현재 교사는 총 8명 근무(모두 part time) + 행정지원하는 manager 1명(자원봉사자이며 part time, 1년에 몇 회만 일 함)
  - 교사 수 : 8명, 각 그룹에 2명의 전문자격을 지닌 교사가 지원되며 자원봉사자/교생실습자 등이 추가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음.
  - 행정직원(및 자원봉사자): 5명, 행정업무, 이사회 업무, 재무업무, 인사관련 등 수행함.
- (학생수) 어린이는 총 64명 재원, 16명\*4 groups 있음. 아이들은 주2회 등원하며, 개인필요에 따라 참석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시킬 수는 없음
- (운영) 만 2년 3개월부터 다닐 수 있으며, 2.5세~3세는 오전에, 만3세~4세 미만은 오후에 등원함. 부모

- 가 외국인이어 네덜란드어 못할 경우 2세부터 등원 가능. 수요일 오후에는 특별한 지원(장애, 성격장애 등)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수업 있으며 외부 전문가가 수업을 진행
- (인력)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도 있고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일할 수 있음. 현재 이 기관은 교육의 성격이 강해 교사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높음
    - 보육과 또는 유아교육과 교육과정 (Voor -en vroegschoolse Educatie: VVE), 피라미드 방법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를 반드시 요구함. (de Piramide-methode : <https://www.piramidemethode.nl/> 놀이를 통한 교육방법, 시각적 도구를 많이 사용)
  - (교사급여 및 status) 급여는 지방정부가 지급함. 이는 어린이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근로시간이 적어 급여수준도 낮은 편임. 공무원 status 이며, 채용은 행정을 담당하는 manager가 담당함
  - (피라미드 교육) 주입식 교육이 아닌 보고, 만지고, 느끼고, 비교하게 하여 아이들을 학습시킴
    - 일반 프로그램: 만 2세 3개월-4세 정상적인 발달 중인 유아를 위한 놀이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모든 어린이들은 일주일 평균 2일 오전 또는 오후에 참석
    - 특수 프로그램 : 만 2세-4세 유아를 위한 특수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환경 등 언어발달/ 정서발달 등이 지연되는 경우 등 실시. 이 그룹에 속한 유아의 경우 일반 프로그램 2일 참석, 특수프로그램 1일 참석 등 보통 주 3회 참석 가능하며 최대 주 4회 참석 가능.
  - (기관평가) 중앙정부의 감사와 지방정부의 감사를 받게 됨. 중앙정부 감사는 아동의 연령/발달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감사는 돌봄(보육교사의 친절성, 아이들의 안전, 행복 등)에 관한 내용을 평가함. 불시점검이며, 행정자료, 교사자격, 교육방식 등을 점검함. child abuse 막기 위해 교사 2명이 함께 돌봄. 4 eyes

## (2) Zorggroep Charim 노인주간보호센터

- (이용현황) 자격 인정이 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인정등급에 따라 최대 4.5일만 이용 가능. 5일 이용할 경우 0.5회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함. 현재 1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음. 이용시간은 오전 10시 15분~오후 3시 30분임
- (이동지원) 도보가능한 경우 도보로, 혼자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자원봉사 협회 통해 소액비용 지불하여(2EURO) 이동지원 서비스 받을 수 있음. 자원봉사가 없는 지역은 전문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업체를 이용하기도 함
- (운영) 노인돌봄 관련 전문 non-profit 기관인 가림재단이 시작한 기관임. 기독교 재단임. 3명의 직원이 활동 중임(2명 정규직, 1명 고정 대체인력) + 자원봉사(프로그램보조, 운송자원봉사, 점심 이동 자원봉사 등 18명). 오늘 인터뷰한 담당자는 전문노인활동 지도자로 part-time이며, 그룹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황임. 그룹사회복지사는 3-4년 학위과정을 마치거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함
- (인력) 인건비는 재단으로부터 받으며, 표준임금체계가 있음. 표준임금체계는 중앙정부와 노조가 협의하여 정함. 임금은 나이, 경력, 교육수준에 따라 달라짐.
- (비용) 지방정부의 보조금과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급 형태임. 1인당 1일 70EURO 상당의 서비스를 받는 것임
  - 이용요금: 이용자 한명 당 하루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은 70유로, 수입에 따라 자가 기여금 지불하며 나머지는 지방정부 사회지원과 지원금.
- (프로그램 상세사항)
  - 9: 45 -10 : 00 : 집->주간보호센터로 이동
  - 10-10:30: 커피타임: 이용자 및 직원, 자원봉사자의 개인 소식 나눔, 지도자가 지방신문 읽어주기
  - 10:30-11:30: 오전 프로그램 진행 (두뇌 연습, 운동, 창의적 활동, 음식 만들기, 베이킹, 문화 관련 프

로그램, 과거 Woudenberg에 대한 회상 프로그램 등)

11:30-12:00: 스프 마시기, 간단한 게임 등 프로그램

12:00-13:10: 점심식사

13:10-14:00: 휴식시간(낮잠 자는 이용자 절반 이상, 나머지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퍼즐게임 등을 함

14:00-15:30: 오후 티타임, 오후 프로그램 진행( 꽃바구니 만들기, 각종 만들기, 보드게임, 네덜란드 전통게임 등)

15:30-15:45: 주간보호센터->집 이동

- 특별 활동: 소풍: 동물원 방문, 티 하우스 방문, 유람선 타기, 박물관 방문, 텃밭 방문 등
- (시설) 현재 이용하는 시설은 지방정부가 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지은 facility 이며, 임대시설로 주택공사에 이용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평가) 지방정부 사회지원과에서 수시로 방문하고 있음. 2015년 사회지원법 개혁 이후 질관리 평가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커짐

### (3) 네덜란드 영유아 보건소 (<http://www.cjgsoest.nl/consultatiebureau>)

- 네덜란드 영유아 건강관리:

- 네덜란드에서 아기가 태어난 후 2 주가 지나면 영유아 보건소의 직원이 가정방문을 함. 첫 방문에서 의료적인 검사는 하지 않으나 가정방문을 통해 아기를 키우기에 가정환경이 적합한지, 아기의 상태 및 부모의 상태도 점검함. 직원은 이 때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건강 환경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전국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함.
- 영유아 보건소 직원은 가정방문 시 바로 부모와 보건소 방문약속을 잡음. 보통은 아기의 집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는 곳에 정해지며 매번 아기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위해 고정적으로 방문하게 됨 영유아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전문의 및 전문 간호사가 일하며 그들은 네덜란드의 모든 0세부터 4세까지의 아동의 건강을 관리, 전국 예방접종 프로그램도 영유아 보건소를 통해 실시됨. 네덜란드 내에는 880 개의 영유아 보건소가 있으며 0-만 4세까지의 영유아 건강관리를 담당함.

### (4) 합의

- 위트레흐트의 지역 돌봄공동체가 기능함.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공간 속에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노인 주간보호센터, 영유아보건소, 노인주택 등이 인근에 밀집되어 있음.
- 시간제 근로 활성화 속에 자원봉사자가 다수 참여
-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역할은 제한적이나 규제와 관리의 역할은 매우 분명함.

## 5. 네덜란드 가정방문서비스 현장 전문가 세미나(7.6)

[참석자]

- Danielle van der Veer, Cora van Zeyl: Buurtzorg Nederland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기관 (Twentelaan 15 7609 RE Almelo)
- 김은지 연구위원, 최인희 연구위원(본원), 김수정 교수(동아대학교), 양난주 교수(대구대학교)

### (1) 기관소개

- 현재 네덜란드에서 9000명의 clients에게 서비스 제공 중. Buurt는 neighborhood, zorg는 care를 의미.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 management를 간소화하여 main office에서 financing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nurse는 주1회 팀미팅을 통해 의견공유

- (비용) home care service 비용은 의료보험에서 지원되며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없음
- (운영방식) nurse는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약투여, 현재 상태(식사, 불편사항 등), 일상생활지원(목욕 등), communication 등을 확인하고, 확인한 영역별로 client의 구체적인 상태를 기록함. 또한 상황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시스템에 입력하여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서비스 내용은 client의 상태 및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 시간도 이에 따라 20-45분 정도 소요됨. client에게는 동일한 간호사가 계속 오는 것이 아니므로 팀에 소속된 간호사들의 정보와 전화번호가 기록된 폴더를 제공받음. 치매가 있는 경우, 약의 과다복용을 막기 위해 열쇠나 비밀번호 잠금장치가 있는 상자를 배치함

## (2) 한국의 노인돌봄정책 소개외 함의

- 한국 돌봄정책의 최근 변화 사례 소개
  - 최근 급속한 돌봄정책의 확대, 돌봄의 공식화와 보편주의의 진전
  - 민간위주의 전달체계로 인한 한계와 개선과제 존재
  - 한국 재가서비스의 특징
- 전달의 효율화, 테크놀로지의 활용 가능성
- 국가가 보장하는 돌봄의 수준과 목표에 대한 구조화 필요